

대학 실험실 창업지원 본격화

교육부·과기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전북대, 창업 휴학제 기존 한 학기→ 최대 4년으로

대학이 보유한 특허·논문 등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대학(원)생과 교원이 창업에 성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험실 창업' 지원이 본격화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대학 실험실 보유 기술 역량, 대학별 창업 지원 계획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송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등 총 5개 대학을 올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협력해 교원,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실험실 창업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

업수당 등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자금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술 보유 실험실 대상 후속 연구개발(R&D), 사업화 모델 개발 등 실험실 창업 과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우수 실험실 창업 기업을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심사를 거쳐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원까지 투자를 보증하는 'Campus Start-Up(캠퍼스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북대는 창업 휴학제를 기존 한 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창업학과(가칭)를 대학원 과정에 개설하고 지역 내 창업 보육·교내 창업동아리 지원 실적을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북지역 5개 창업보육센터와 지역 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실험실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한다.

고 창업 전담 교원을 상주시켜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세대는 창업기획자를 실험실 창업 지원 상근 인력으로 채용해 우수 기술 보유 실험실 6곳의 사업화를 전담하고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실험실 창업 과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우수 실험실 창업 기업을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심사를 거쳐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원까지 투자를 보증하는 'Campus Start-Up(캠퍼스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북대는 창업 휴학제를 기존 한 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창업학과(가칭)를 대학원 과정에 개설하고 지역 내 창업 보육·교내 창업동아리 지원 실적을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북지역 5개 창업보육센터와 지역 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실험실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대는 교원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창업연구년제를 도입한다. 교수가 지도한 학생이 창업을 하고, 이 학생이 본교 학생을 고용할 경우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학원인 '스타트업 스쿨'을 2020년까지 개설해 대학원생이 연구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양대는 실험실 창업팀이나 대학원생 창업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30명 규모의 기숙형 창업공간인 '247 스타트업 돔'을 구축해 실험실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247 스타트업 돔은 전용 기숙사 제공, 방별 전담멘토 배정을 통한 사업화 지원, 창업한 학생들이 투자·지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데모데이(demoday) 개최, 창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뉴스시스

이상현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수목 정확한 탄소 흡수량 추정 연구 가치 인정받아 "산림의 역할 계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큰 의미"

전북대학교는 이상현 교수(농생대 산림환경과)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는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수는 "임령에 따른 바이오매스확장계수(BEF) 추정식을 개발함으로써 임령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부위별 BEF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해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임령에 따른 바이오매스확장계수(BEF)를 추정할 수 있는 BEF 추정식을 개발함으로써 정확한 탄소흡수량과 탄소흡수량 추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산림의 역할을 계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아이큐어와 바이오 기술 협약

의약품·진단키트·한방주사제 등 신경계 질환 치료 경쟁력 강화 건강의료산업 기술력·혁신역량 증진과 생명자원 기술 발전 기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아이큐어(대표이사 최영권)와 '퇴행성 신경질환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원광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김도중 총장과 최영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송문규 산학협력단장,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최기남치정신경근육질환센터장 김성철 교수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약품, 진단키트, 한방주사제, 뇌신경보호건강식품 등 신경계 질환 치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의료산업 기술력 및 혁신역량 증진과 생명자원 기술 발전 기여를 위한 사업 추진 등 여러모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경계는 신체 내·외부 자극과 신호를 받아들여 다른 부위로 전달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기관으로서 신체 활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통제

하는 역할을 하며,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뇌혈관 질환, 치매, 이상운동질환, 척수질환, 운동신경 세포질환, 근육질환, 신경계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은 첨단 바이오기술이 집약 접목되는 차세대 항암 영역이다.

특히 치매와 파킨슨병,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부계리병 등은 삶의 질을 파괴하는 신경계의 대표적 질환으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분야로 인식돼 있으며, 학계 및 산업계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원광대와 아이큐어가 신경계 질환 치료 기술협약을 통해 급진적인 제약산업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도중 총장은 "아이큐어와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개선 치료에 관한 기술개발 협력관계를 맺음에 따라 환자들에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며, "한의학, 의학, 약학 등

통합의약품기술 R&D 기반을 둔 원광대와 신경계 질환에서 약물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진 제약회사 아이큐어(주)와 협력 방안이 마련돼 한국 의약품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영권 대표이사는 "신경과학 등 차세대 항암 영역이란 표현을 의학 논문에서 쓸 만큼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제약사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분야"라며, "퇴행성 신경염증 치료제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해 원광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미래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신약의 제표화 뿐만 아니라 향후 근육 기능 이상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등 노화 관련 질병 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아이큐어(주) 대표이사 최영권)와 '퇴행성 신경질환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북대학교 동문 축하연이 지난 3일 당선 동문과 동창회 임원 및 동문교수, 총학생회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대, 6.13 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성료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북대학교 동문 축하연이 지난 3일 전북대 진수당 기인홀에서 당선 동문과 동창회 임원 및 동문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등 50명의 전북대 동문들이 참석한 이번 축하연에서 이용규 회장은 "전북대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날"이라며, 동문들의 당선소감을 많이 듣기 위해 소감을 짧게 밝혀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어 이남호 총장은 대학 발전상을 소개한데 이어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전북대인의 역량을 모아 모교와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숙주 순창군수 등 당선자들은 "전북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디에서든지 전북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저녁 늦게까지 참석 동문들이 덕담을 나누며 함께 자리를 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권역별 간담회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못 지않게 학부모들과 강사, 업체 등 관심이 많은 방과후학교는 돌봄교실을

포함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진안·무주·장수권역을 시작으로 7월 3일에

는 군산권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오는 6일 오후 2시30분 일실교육지원청에서는 임실·순창·남원권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방과후학교에 관심 있는 교직원, 강사, 업체, 학부모, 담당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의 현안 문제와 내년도 운영 방향 및 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어 9일에는 정읍교육지원청(정읍, 고창권역)에서, 19일에는 김제교육지원청(김제, 부안권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